

제목: "부흥을 준비하라"

말씀: 이사야 52장 7-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질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고난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앞으로 일어날 부흥에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아울러 어떠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 1) _____고 하십니다.
- 2) 스스로를 _____고 하십니다.
- 3) _____하여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10월 3일)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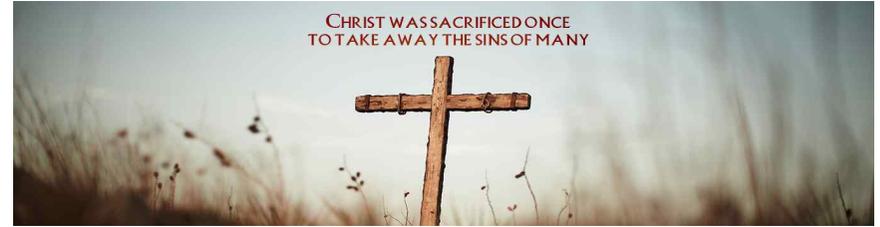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에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이사야 52장 7-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Isaiah 52: 7-12 구약 1032 페이지 President
- 말씀 "부흥을 준비하라"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True Revival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단풍나무)

우기(Rainy season)가 시작 되었다. 이상기후 문제로 가을과 겨울이 빨리 다가온 느낌이다. 늘 가을을 맞으면 단풍을 보게 되는데 그 때마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풍 구경을 멋지게 하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기회가 되지를 않았다. 결국 뒷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치울 때에 아까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먼지를 머금으며 겨울을 맞는다. 동부에 살 때에는 그 시간이 4-5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많은 양의 낙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밴쿠버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칠 만큼의 낙엽이 떨어진다. 올 해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그 단풍이 멀리까지 않아도 가까이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었다. 5번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에 옆에 누군가 심어놓은 나무가 빨간 색을 내며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기대하던 곳이 아니다. 그곳에 나무들이 단풍 나무였는지도 몰랐다. 마켓을 가는 길가에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일렬로 빨간색과 노란색을 만들어낸다. 그곳에 있던 나무들이 그런 종류의 아름다운 나무인줄 전혀 몰랐다. 지나가는 길가에 집 없는 형상 굴을 것 같은 사람들이 쳐 놓은 텐트들 사이에도 단풍이 졌다. 그곳은 쓰레기와 더러운 것이 많이 있던 곳이었는디 지난 주 지나가면서 보니 누군가 그 자리에 심어 놓은 단풍나무로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주위 가까이에 아름다운 단풍은 그렇게 시작해서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주위에 쉽게 발견한 단풍들로 인하여 먼 곳에 있는 단풍만을 생각하던 내 자신이 허전하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2-3시간 걸려 도착한 그 어딘가에 비해 한 치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이다. 교회에 나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 장소나 부흥회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한 매일 저녁을 먹는 내가 사는 집에서 그리고 매일 운전하며 다니는 나의 자동차 안에도 항상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그 은혜를 신학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위대해 질까? 그것을 건물과 사람들을 숫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뜨거움의 결과일까? 아니다. 엘리야를 조용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가 아닌가? 모든 것에 지쳐버린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 쉬며 살아간다. 그 은혜를 따라 살다가보면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진짜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만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 합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조영실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뉴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새로운 협력 선교지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월 \$300씩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시작으로 이제는 교회 개척과 아울러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내외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친교

앞으로 당분간 예배 후 친교 준비는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